

재정·교원난 이유 대부분 '주춤'

불교교양대학 정규대 설립 전망

재 및 이수자들이 하여금 교수자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학동등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조-대분류 사찰인 불원사에서 학교법인 설립하기까지는 조계종과 태고종, 재산관리권자인 사대문구정장과의 합의가 선결과제로 남아있다.

교대학의 난립은 불교교육의 중차대한 면에서 볼 때 결코 이익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불교 건학이념으로 도제양성과 포교를 담당하고 있는 대학이 타종교에 비해 월등히 적은 시점에서 종단차원의 보다 철저한 불교교육의 방향 설정과 각 대학측의 적극적인 준비가 시급하다"고 말한다.

육천범음·동방·삼화 3~4곳 추진 움직임 전문도제 양성 호기...종단차원 지도 필요

그의 전문대학 설립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는 삼보불교대학·대원불교대학·동산불교대학·공주불교대학 등은 추진의지와 달리 임원회의 및 논의절차만을 거쳐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 육천범음대학, 동방불교대학과 삼화불교대학 등 3~4곳에 불과하다.

하지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주장한다. 전문인물적인 교과과정을 전향적으로 개선해 각기 특색있는 대학을 지향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다.



◇ 전국 50여개 불교단체와 1만여명의 불자들이 참가한 청정운동 불교신앙으로 우리사회를 깨끗하게 하겠다는 불자들의 의지를 드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진은 대구대회 모습.

"법제가단체 단합가능성 확인"

전국 50개단체 1만명참가... 청정성 회복 씨뿌려 성폭력·환경등 사회문제 불교적 해법제시 '과제'

강연, 선언문 실천지침 채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강연은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교적 해법을 모색했으나 신선함보다는 익히 알려진 내용을 재차 강조하는 성에 그쳐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는 데는 미치지 못했다.

여명의 불자들이 참가했지만, 재가운동으로서의 큰 흐름을 이루는데는 미치지 못했다. 한 교계인사는 "성폭력, 국회공전, 환경문제 등 큰 이슈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청정성을 개인의 문제에만 한정시켰기 때문이었다"고 분석하고 "붓다의 가르침에 입각한 사회적 실천력을 지닌 모험정신이 필요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 운동에 전국 50여개 불교단체와 1만

시론 국회의원들의 '생명나눔'

며칠 전 일간지에는 우리의 눈길을 끄는 기사가 있었다. 여야 국회의원 22명이 사후에 각막을 기증하기로 공동서명하고 각종 임법활동 등을 통해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도 다짐했다는 얘기다. 이미 조용하게 장기기증 등록을 한 사람들도 많은데 새삼스러울까 무엇인가 하고 반문할 수도 있다. 또 죽고난 후에 각막을 기증한다는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할 지도 모른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남의 일 같이 말들도 한다.

1944년에 미국에서 시작된 각막기증운동은 전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 일본의 경우 기증등록자가 1백만명에 이르고 특히 불교국가인 스리랑카에서는 전 국민의 50% 이상이 안구기증 등록을 해놓은 상태이다.

신선한 모습에 국민감동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다. 우선 우리 사회의 지도급 인사들이 국민들에게 비추는 그들만의 모습과 대비되는 사적인 면에 반감을. 그들의 사회적 영향력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물론 보통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뜻을 세워 장기기증 신청을 하고, 그 장한 마음들이 소리를 지르며 주위를 감동시켜 생명나눔 운동이 확산되는 것이 더없이 소중한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국민들에게 인류와 민족의 비전을 제시하고 스스로 실천하기보다는 개인이나 소속 집단의 권리와 이해관계에만 얽혀

우리아리에는 현재 15만명의 시각장애인이 고통속에서 살고 있으며 그중 2만여명은 각막만 있으면 이식수술로 바로 눈을 뜰 수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나라의 각막기증운동은 1962년에 시작되어 최근 종교계의 생명나눔운동의 활성화에 힘입어 매년 평균 5천명의 증가하는 추세이고 현재 3만여명의 기증자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시신에 대한 오랜 유교적 정서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각막기증자가 훨씬 적은 편만 아니라, 설사 생전에 기증의사를 밝힌다고 해도 막상 사망 직후 비통한 분위기 속에서 그 유가족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각막기증에 적정한 시간인 6시간 이내에 적출을 허용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 각막이식수술은 매년 수백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사회지도급 인사들이 장기기증 등록을 하고 그것이 언론에 공개된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공적으로, 그래서 그 가족들까지도 함께 국민들에게



박 광 서 (서강대 교수·물리학)

니전투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또 사회화나 여천공단같이 써어가는 세상, 돈이면 가족도 인륜도 저버리는 세태, 쾌락을 위해서라면 남의 고통이나 죽음도 안중에 없는 성폭력 선진국이란 부끄럽고 답답한 현실을 생각할 때 이번 국회의원들의 각막기증 소식은 그래서 더 신선하고 돋보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배운대로 보시행 나서자

우리 불교계 생명나눔운동의 현주소를 보면 2~3년 사이에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의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이 꽤 높아졌다. 그러나 타종교의 장기기증운동이 전문인력, 예산, 기증자수 등 모든 면에서 불교계의 10배 이상인 점을 생각하면 모든 불자들의 관심과 협조가 새롭게 요청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우선 가르치고 배운대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제안한다. 부처님 법을 수심님 들어도 대승보살의 덕목인 보시행 한 가지를 실천한 것 같지 않다. 이와 함께 불교계 지도자들이 생명나눔에 확신하게 나서달라는 것이다. 불교를 앞서 자신의 명예나 이권을 쟁기는 사람보다는 어떻게 사는 것이 참불자의 모습인지 몸소 실천해 보여주는 교계 어른들이 많이 될 때 사회를 밝히는 불교의 기능은 원천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약속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하겠다.

정성은 기자

속에 곧 전체가 있고 나는 전체와 떨어져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이 우주 전체는 나, 나의 구별이 없이 완전하게 열린 세상이라는 것이다.

우리들은 흔히 나, 내 가족, 내 고향, 내 나라, 내 민족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관념상의 세계일 뿐 본래는 울타리가 없이 완벽하게 열려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닫힌 세계에 익숙해 있다. 무엇보다도 내 몸, 나는 독립적인 세계라는 생각을 한다. 그런 생각은 매우 완강하다. 비록 이 세상이 그물처럼 서로 연결된 공생의 세계임을 안다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삶의 관계성이 본질면에서는 개체와 개체는 독립적이라고 믿는다.

개념이 닫힌 세계에서 열린 세계로 나아감을 말한다. 나와 대상의 구

별이 사라지고 본래부터 열린 세상이라는 실상을 아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방 안에 갇혀 지내던 사람이 광활한 들판으로 나아감으로써 비로소 안팎이 없이 넓고 자유스러운 줄을 아는 것과 같다.

우주는 광대무변하고 무한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자유롭게 순환을 한다. 아니, 열린 세계이므로 드나들 없이 드나들고 해야 옳다. 고로 퍼내어도 줄지 않고 보태도 늘지 않는다.

얼마든지 꺼내 쓸 수도 있다. 닫힌 세계 속의 에너지는 한계가 있지만 열린 세계의 에너지는 한계가 없다. 끌어다 쓰는 대로 무궁무진이다. 무량한 보배창고라고 하는 까닭도 거기에 있다.

열린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엔 문이 없다. 무문관이다. 본래가 열려 있는 세계이므로 들어간다 나온다가 없기 때

문에 문이 없다. 허허벌판에 나고 드는 문이 없는 것과 같다.

그러나 우리들은 스스로 닫힌 세계를 고집하기 때문에 열려 있는 줄 모르고 문을 찾으려 한다. 스스로 안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통로를 찾으려 한다.

답장을 열어야만 안팎의 경계는 사라진다. 내 몸, 나를 닫힌 세계로 보는 관념만 버려 버리면 구태여 문을 찾고 통로를 찾을 필요가 없다. 그대로 열린 세상이 된다. 내 속에 전체가 투영되고 전체 속에 내가 투영되는 둘 아닌 세상이 된다. 그래서 죽어야 보리라, 닫힌 세계로 보는 나의 관념이 죽어야 열린 세계를 보리라 한 것이다.

불법은 우리들을 열린 세계로 인도한다.

협찬 : 주인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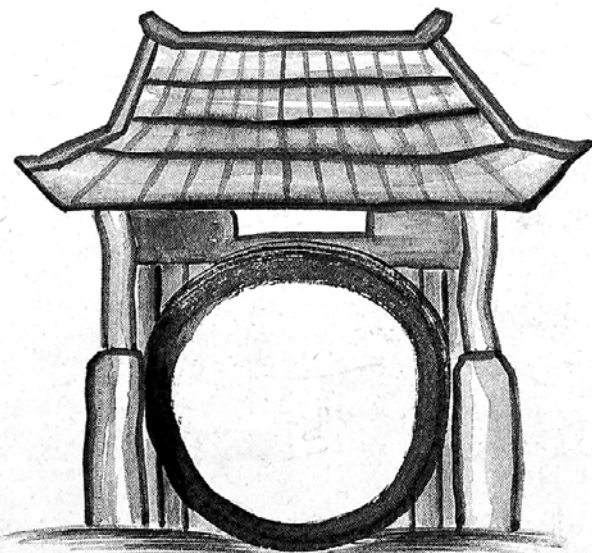
생활 속의 불교 (83)

열린 세계에서 갇혀 사는 사람들

제석천에는 인타라망(또는 제망帝網)이라는 보배 그물이 있다고 한다. 이 그물에는 낱알의 코마다에 보배 구슬이 달려 있고 그 구슬 하나하나마다엔 다른 낱알 구슬의 영상이 비치며, 또 그 영상이 다시 모든 구슬의 영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마치 거울과 거울을 마주 세워 놓았을 때 거울마다에 거울 모습이 끝없이 중첩되는 것과 같다.

인타라망은 이 삼천大千 세계의 관계를 보여 주는 것이다. 말하자면 하나의 개체마다엔 전체가 투영이 되어 있으므로 개체가 전체, 전체가 개체라는 둘 아닌 도리를 나타내고 있음이다. 달리 말하면 이는 내가 곧 전체, 내

속에 곧 전체가 있고 나는 전체와 떨어져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이 우주 전체는 나, 나의 구별이 없이 완전하게 열린 세상이라는 것이다.



문에 문이 없다. 허허벌판에 나고 드는 문이 없는 것과 같다.

그러나 우리들은 스스로 닫힌 세계를 고집하기 때문에 열려 있는 줄 모르고 문을 찾으려 한다. 스스로 안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통로를 찾으려 한다.